

2011년

5.6월호

THE Holistic health



H H A

-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 지존하신 여호와는 엄위하시고 온 땅에 큰 임금이 되심이로다
-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열방을 우리 땅 아래 복종케 하시며
-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는 중에 올라가심이여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 하나님은 온 땅에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 하나님이 열방을 치리하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 열방의 백성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밤파는 여호와의 것임이여 저는 지존하시도다

THE Holistic health

3 권두언 이영은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5 마음(영혼)건강 방지일

Malsbery(馬斗元)와 나와의 관계

7 물건강 이태희

건강한 삶에 대한 접근

10 전인건강뿌리 조무성

삶의 영역과 바보의 분류 (3)

14 언론으로 본 회원

1) 김영준 조무성(국민일보 2011.6.2일자)

2) 김애자(국민일보 2011.6.8일자)

3) 김상복(크리스천투데이 2011.6.18일자)

21 학회소식

● 표지그림 설명

2011년 5월 28일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간호대학 218호에서 전인건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 마치고 단체촬영.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 전국의 간호사들이 전인건강운동에 참여하게 되는 그날까지

이영은

고신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전인건강학회 이사



올해 초 국민일보에서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전정희 종교기획부장)는 칼럼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요지는 이제 우리나라도 일본과 비교해 보았을 때 여러 가지 면에서 별로 차이가 없는데, 중요한 차이 한가지는 일본에는 ‘어디를 가도 따라붙는 스토리텔링’의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토리는 언어로 구성되는데, 지식기반사회에서 언어의 힘은 개인의 능력과 같다고 합니다. 단, 생명에너지를 가진 언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하지만...

최근에 ‘나누는 사람이 리더이다’, ‘리더쉽 훈련 10년 보다 자원봉사 1년이 훨씬 가치 있고 유용하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권두언을 빌어 이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들을 ‘나누었을 때, 그리고 같은 꿈을 품고 아무 조건 없이 서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쁨으로) 자원해서 섬겼을 때' 일어난 기적을 나누려고 합니다.

작년 부산의 기독간호사 5명으로 시작했던 부산 전인건강운동본부가 부산기독간호사회와 협력하여 올해 6월 『전인건강과 간호사의 역할』을 주제로 간호사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대한간호협회로부터 공식인증 받고 약 140여명이 교육받았습니다. 참석했던 대부분의 간호사들이 전인건강과 전인간호의 패러다임에 새롭게 도전 받고 감사하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꿈은 간호사 중심의 ‘생명의 말씀’에 토대를 둔 전인건강 운동이 전국 간호계에 일어

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간호사가 병원에 근무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전인건강, 전인지유, 전인간호가 올바르게 적용된다면, 우선은 자신과 가족들에게, 그리고 증가하고 있는 암환자를 비롯한 만성질환자들과 가족들에게 매우 유익하고 놀라운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지면을 빌어 부산시 간호사 보수 교육차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먼 곳까지 와주셔서 강의해 주신 조무성 교수님, 전남대 의대 이현철교수님, 국제예수제자들(IDI) 대표 채영애교수님, 그리고 3분박 음악요법을 강의해주시고 해금연주까지 준비해주셔서 피곤한 간호사들을 소생케 하신 손해석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까지 여러 해 동안 기도와 시간, 물질, 힘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전인건강학회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섬기시는 분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전인건강운동본부 부산지부 회원 (춘계학술대회 참가자)

- 강명미- 부산시 기독간호사회 회장, 전인건강운동본부 부산지부 회장
(전 광혜병원 간호부장)
- 이정숙- 전인건강운동본부 부산지부 총무
(전 부산광역시 간호사회장, 전 동아대학교 의료원 간호부장)
- 정정숙- 부산시 기독간호사회 회계이사, 전인건강운동본부 부산지부 회원
(현 부산보훈병원 간호부장)
- 정명옥- 부산시 기독간호사회 서기이사, 전인건강운동본부 부산지부 회원
(현 동아대학교 의료원 간호부장)
- 강해자-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간호부장, 전인건강운동본부 부산지부 회원
- 정경임- 대동대학교 간호과 교수, 전인건강운동본부 부산지부 회원
(전 월레스기념 침례병원 간호부장)
- 최현자- 고향의 집(Nurisng Home) 간호사, 전인건강운동본부 부산지부

Malsberry(馬斗元)와 나와의 관계

방지일
영등포교회 원로목사



그는 음악을 전공하신 분으로 숭실대학교에 음악교사로 초청을 받으시고 내한하셨다. 강사의 위치로 음악을 가르쳤는데 음악도 이론뿐 아니라 그는 숭실 대학 관현악단을 지휘했고, 피아노, 성악도 가르쳤다. 때로 전국 순회 음악회를 하였다.

그의 한국 제자로서는 박태준박사 (연세대 초대 음악대학장을 지내신 분), 그리고 김홍전 박사 (도미하여 신학도 전공하고 음악도 전공한 분이시다) 이 두 분은 다 한국 음악계에 큰 공헌이 계신 분이시다. 김홍전 박사는 대전대학의 학감을 지내시기도 했고, 언론기관에 봉사하다가 캐나다에 이민 가셔서 작고하였다. 박태준박사는 숭실 대학에서 마두원의 조교 일을 맡기도 하였다.

나는 학생시절 <개자씨>란 월간지를 발행하면서 같이 기도할 일이 있으면 마두원선생의 집으로 새벽에 가곤 한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때로 만나곤 한다. 내가 무슨 문제를 제기하면 마두원선생은 성경을 펴면서 말씀으로 같이 읽고 기도하는 그 진지함이 비길데 없다. 어떻게 그렇게도 꼭 주시는 말씀을 찾아내는지 감탄사가 나온다. 하루 아침에는 찾아 갔더니 잠옷을 입은 채 문을 열어 주면서 들어오란다. 나는 ‘오늘 아침은 성경의 어디를 보셨소?’ 하고 물으니 ‘오늘은 예배소서를 16번 읽었소이다’ 하는 것이다. 그러면 96장을 읽은 셈이다. 이렇게 그는 참으로 진실하고 진지했기에 나는 그에게 흑하여 빠졌다 할 것이다.

그는 한국말은 못하신다. 그렇다고 내가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나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통한다. 나는 그와 같이 가로(길) 전도도 많이 하였다. ‘오늘 내가 만난 사람에게 길가에서라도 전도하지 아니했다면 이후 주님의 낮을 보기 미안하지 않겠느냐 하며 우리 말은 잘 모르나 성경을 펴서 들려주신다. 나는 같이 이렇게 작작 나무 팔레 모인 우차 거리에 매일 나가곤 했다. 거기서 참 많은 사람에게 전도를 하였다. 방학때가 되면 때로 먼 농촌으로 가서 교회에서 집회도 하고 며칠 간 촌집에 유하기도 하였다. 농촌교회에서는 가장 큰 대접이 닭을 잡아 국을 끓여 드리는 것이다. 마두원선생은 한국의 풍속을 모르시니 그 귀한 닭 국에다 밥을 맘아 드시다가 남겨 놓기도 하였다. 먹을 만큼 덜어서 먹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알려 드렸더니 이후로는 일일이 물고 식사를 하던 것도 기억에 생생하다.

하루는 가로(길)전도를 하려고 나가는데 자기 집에서 공부시키는 중학생에게 택시를 불러오라 하였다. 그가 가서 차를 불러왔는데 그때의 택시라야 짚차 같은 차인데 문이 다 낡아 그 추운 겨울인지라 불쾌하여져서 어디서 이런 차를 불러왔느냐고 책망을 했다. 그래도 타고 나가다가 다시 돌아 가자고 한다. 이렇게 그냥 가면 어쩌는가 물으니 ‘전도하러 가는 사람이 어찌 성을 내고 가느냐’ 하면서 돌아가서 그 학생에게 미안하고 잘못함을 고하고 나서야 다시 나간 일이 있기도 하다.

그는 숭실대학 관현악단을 데리고 전국 순회를 여러 번 했는데 연주할 때에도 꼭 기도를 하고 시작한다. 한번은 적지 않게 화음이 어울리지 않자 막간 휴식시간에 전원에게 오늘 우리의 기도가 부족했다고 자복하고 기도하고 시작을 다시 하곤 했다. 그는 기도꾼이었다. 때로 내 집이 게자씨사(社)라 우편물을 발송 할 때면 그도 같이 와서 포장을 하여 발송하는데 밤엔 냉면을 먹기도 했다. 그에겐 온면을 시켜드린다. 그런데 그 냉면 국수발이 잘 끊기질 않으니 ‘이려다간 입에서 흥문(항문)까지 이어져 통하겠다’는 말을 해서 웃기도 하였다.

나는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도 아니나 그와는 기도 동지로서 무슨 일이 있으면 그를 찾아 기도하고 했는데 그리도 신통하게 맞는 말을 성경에서 찾아서 같이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살았다.

우리 게자씨 사에서 그가 편곡한 악보를 출판하여 평양 성가대에 배포한 일도 있다. 거의 80년전의 일인데 어딘가에서 그 책이 좀 발견되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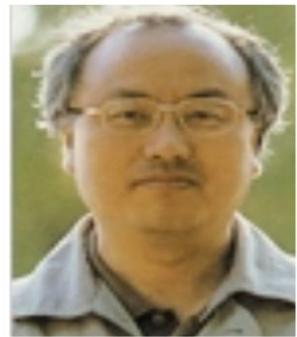
이렇게 우리 둘이 거의 매일같이 새벽에 같이 기도했는데 이렇게 우리만 할 수만은 없다 생각하여 다른 기도 동지들도 마선생의 집에서 기도하게 되어 한 그룹이 생기기도 했다.

나는 신학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중국선교사로 떠났다. 그 21년이 지난 동안 나는 정변을 중국서 다섯 번이나 당했고 공산치하에 있으면서 완전 두절상태에 빠져 전연 외부와는 불통의 세계에 살았기에 본국 소식도 모른다. 다만 내 친구 신양동지인 김진홍이 미국서 적십자를 통하여 들어준 안부가 제일 처음이요 나중이라 할 것이다. 1957년 추방을 받아 홍콩을 거쳐 회국하니 마두원은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파송되어 오셨다. 성경장로교회 선교사인고로 교단이 달라져 있었다. 신학교도 세우고 활발하게 역사를 보았다. 내 속부는 그와 같이 성경장로교회에 합류하였다. 마목사는 강원도에서 일하시다가 교통사고로 별세했는데 성경장로교회장으로 장례 할 때 우리의 관계를 알고 있는 그 총회에서 내게 추모사를 부탁하여 추모사로 그를 보냈다. 그의 묘소는 우리 기독교 묘원에 있다.

건강한 삶에 대한 접근

이태희

경원대학교 한의대 교수
전인건강학회 이사



요즈음 사람들이 흔히 묻는다. 뭐가 몸에 좋은지...

사실 우리 몸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려내어 좋은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로 보양식을 중심으로 얘기 되고 있고 그 다음 질병에 대해 효능이 좋은 것을 말합니다.

이런 좋은 것을 복용하고 나서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해악을 끼칠 때도 많은 것은 무분별한 섭취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좋다는 것의 기준도 사실 엄격하게 따져 보아야 합니다. 그저 생기가 나서 활동하기에 불편함을 주지 않는다면 다 좋은 것인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생기가 체내 대사활동의 과잉활동으로 인해 나온 것이고 그 결과가 오히려 우리 몸을 더 해치는 결과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운동을 과하게 하거나 지나치게 좋은 음식을 많이 먹게 되었을 때 우리 몸에서는 과도한 활성산소가 나오게 되어 세포막을 파괴시켜서 오히려 노화를 촉진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건강은 우리 삶의 총체적인 결과로 보여집니다. 건강한 신학적 바탕위에서 건강한 철학이 건강한 철학적 바탕위에서 건강한 심리적 현실이 있게 되고 그래야 건강한 삶이 나와서 건강을 유지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 동안 우리는 몸만 보고 살았다. 몸에만 좋으면 다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음이 많이 알려졌습니다. 동물실험의 결과이긴 하지만 영아기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시상하부(hypothalamus)에 있는 neuropeptide Y 신경원이 흥분되어 늘 배고픔을 유지하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음식과다 섭취로 인해 대사성 x 증후군(Metabolic x syndrome)에 걸리게 되어 고혈압 비만 당뇨를 앓게 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중에 DHA를 복용시키지만 효과 없는 것 이 동물실험에서 밝혀졌습니다.

이는 심리적 스트레스가 염증으로 인해서 염증 매개인자인 cytokine에 의해 일어나는 일련의 반응으로 생긴다고 보아야 하는 것으로 한의학에서는 이를 화(火)로 설명해 왔습니다. 그래서 화를 가라 앉히기 위해서는 적게 먹는 것과 과도한 정신활동 과도한 생활활동을 피하라고 얘기해 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몸으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말은 전인격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몸으로만 보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시간개념만 해도 그렇다. 외부적인 흐름으로만 시간을 파악하다 보니 파편화된 객관적인 흘러가는 시간이 되었다. 이것이 크로노스로 설명되는 시간이고 의미로 접근하는 시간이 있다면 그것은 심리적 시간이며 여기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현재로 보이는 시간이 있다는 얘기를 어거스틴은 말했다고 하며 이것이 카이로스로 설명되는 심리적 시간으로서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것은 바로 이 심리적 시간이라고 어느 철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존재론적 의미를 따져보아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는지 이제는 삶의 질을 생각하고 성장이 아닌 성숙을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는지 활동에 의미를 두고 존재론적 각성과 의미를 따져 보지 않은 채 무조건 좋은 것이 좋다는 식으로 달려가서 실제로는 좋은 것 같지만 파괴되는 경향이 많은 현대 문화를 그대로 따라 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할 것인지 이제는 냉철하게 생각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신경질환을 치료할 때 성장인자를 투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도하면 바로 독성으로 변하여 신경을 오히려 죽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도 과하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보약도 필요할 때의 보약이지 무조건 좋다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대 문명이 주는 안락함을 위해서는 얼마만한 경쟁을 통해서 쟁취해야 하는지 알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휴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휴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휴식이 아니라 무한경쟁에서 놀여나는 휴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답게 하다 보니 열매가 떨어지는 방식은 구시대적인 발상인가요?

저는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자주 말합니다. 과정에 충실히 해서 열매는 저절로 떨어지는 것 해보라고 합니다. 이는 평소에 누적된 결과를 말합니다. 어느 순간에 한꺼번에 우리의 삶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일상성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을 동료에게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성숙한다는 가능성은 적어도 65세까지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때까지 계속 성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게으름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 없이 몸만의 질병을 가지고 따질 때 만큼 위험할 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공계와 인문계를 구분한 현재 교육이 문제 있음을 지적한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의학교육에서도 인문학을 인문학교육에서도 자연과학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 존재가 따로 가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교육은 독일에서 일본으로 일본에서 우리에게로 전달된 지극히 억압적인 도식적인 교육을 받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미국교육의 철학은 안나 프로이드의 철학이 그대로 사용되었고 그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해방 이후로 전달되었습니다. 감성의 억압과 채찍에 의한 반복훈련 이것만으로 교육을 진행해 왔고 그 결과 오히려 창의성이 죽었습니다. 그렇다고 공부하지 않고 놀아도 된다는 식의 아무렇게나 해도 좋다는 식의 접근이 괜찮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것이지요 제레미 리프킨이 공감의 시대를 읽어가면서 다시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를 전체 인격으로 대해야 건강하게 살게 될 것 같습니다.

21세기 바보론 - 삶의 일꾼찾기

삶의 영역과 바보의 분류 (3)

조 무 성

고려대학교 교수

고려대학교 건강도시연구센터장

전인건강학회이사장



바보를 네 가지 기준으로 보면 욕심을 버리고 섬기며 세상을 바로 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다. 우리나라에 앞의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리고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바보가 국가의 어떤 영역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 한국교회에 위의 네 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이런 질문은 얼마나 국가다운가 교회다운가에 대한 다른 표현이다.

세상을 바로 보고 욕심을 버리고 섬기는 사람이 많을수록 이 세상은 살맛 나는 세상으로 향해 갈 것이다. 그러나 현실을 왜곡하고 욕심을 채우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고통스러운 세상으로 향해 갈 것이다. 이처럼 고통을 가중시키는 인간은 악하고 힘센 사람들이다. 바로 보고 욕심을 버리고 섬기는 사람은 달리 표현하면 착하고 힘센 사람이다. 착하다는 것은 정직하고 남을 배려하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보고 욕심을 버리는 것과 통한다. 남을 섬긴다는 것은 남을 돋는데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것이다. 힘이 많이 있음에도 자신의 욕심을 채우지 않고 이웃을 겸손히 섬기는 사람은 수준 높은 바보 축에 속한다. 이렇게 보면 바보는 착하고 힘 있는 사람이다. 이 세상은 착하고 힘센 사람과 악하고 힘센 사람 그리고 착하고 힘없는 사람, 악하고 힘없는 사람으로 나누어진다.

국가라는 집은 주춧돌인 교육, 기둥인 경제, 대들보인 정치로 구성된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랑방인 사회, 안방인 가정, 창문인 언론, 지붕인 예술로 구성된다. 이러한 각 삶의 영역에 바보가 많다면 그 국민의 삶의 질은 더욱 향상될 것이다. 위의 국가라는 집의 비유에 흥아 삶의 영역에 따라 바보를 분류하면 교육바보, 경제바보, 정치바보, 사회바보, 가정바보, 언론바보, 예술바보가 된다.

교육바보는 교육을 바로 보는 사람으로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교육하는데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그들을 섬기는 사람이다. 초등교육 바보는 초등학교에서, 중등교육바보는 중·고등학교에서, 고등교육바보는 대학교에서 각각 교육을 바로 보며 욕심을 버리고 섬기는 사람이다. 교육바보는 교사와 교수가 공급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교사와 교수 중에 이러한 교육바보가 많이 나와야 한다. 학교장이나 총장이 교육바보가 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미션계통의 학교 중 모범이 되는 교육바보도 있지만 정반대의 경우도 있어 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학교도 있다. 교

육은 국가의 주춧돌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기둥인 경제를 튼튼히 했지만 교육의 주춧돌을 놓는데 실패하고 말했다. 교육바보들이 많아질 때 국가의 기초가 튼튼해진다.

경제바보는 경제를 바로 보는 사람으로서 기업의 생산에 있어 기업윤리를 지키며 소비자들을 섬기는 사람이다. 경제는 국민의 생존을 위한 수단 획득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각종 재화나 서비스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 이러한 경제바보가 많아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재벌총수 중 정직하며 기업윤리를 지키며 국민을 섬기는 경제바보가 많이 나와야 한다. 우리나라의 역사상 기업윤리를 철저히 지키는 재벌총수는 찾기가 어렵다. 재벌은 아니지만 철저한 기업윤리로 국민의 고통을 돌보며 치약과 결핵약을 생산한 유한양행을 창업하고 재산을 사회에 훌륭한 유일한 박사는 전형적인 경제바보이다. 이러한 바보들이 많아야 경제의 기둥이 튼튼해진다.

정치바보는 정치를 바로 보는 사람으로서 사심을 버리고 공익을 위해 정책을 만들고 국민을 섬기는 사람이다. 정치는 국가의 목표를 정하고 실현해가며 사회를 통합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국회나 정당에 이러한 바보들이 부족해서 국민들에게 평안함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주는 우리의 현실에서 정치바보가 많이 나와야 됨은 물론이다. 사실 역대 대통령 중에 욕심을 버리고 섬기며 국민의 현실을 바로 보는 정치인이 누구인지 딱 집어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을 보면 대통령마다 내세울만한 정치적 업적이 있다손 치더라도 정치바보에 가까이 간 사람을 현재까지는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승만 대통령은 부정선거로 대통령직을 물러났고 박정희 대통령은 중앙정보부장인 김재규에 의해 암살당하고 전두환과 노태우 대통령은 비자금 사건으로 감옥에 갔고 김영삼과 김대중 대통령은 그들의 아들이 구속되었다. 서민적이고 소탈하다고 평가된 노무현 대통령은 측근이 구속되었고 서민과 소탈함의 모델이 되지 못하고 자살로 비극적인 생을 마감했다. 앞으로 남은 임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이명박 정부 3년 반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은 낮은 자세로 섬기겠다는 초심을 지키지 못하고 인사의 실패로 측근들이 구설수에 오르고 일부는 구속되었고 사회통합에 실패했다. 앞으로 정치바보에 속하여 존경 받는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 국민의 희망일 것이다.

정치영역을 넓게 보면 이곳에는 행정부나 사법부 그리고 정당도 포함된다. 행정은 영어로 public administration인데 이것의 어원적 정의는 public=people ad=to ministrare>ministrare = to serve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다. 국민을 정직하게 섬기는 행정바보가 우리나라의 15개부처나 각 지방정부에 포진될 때 국민의 서비스가 놀랄 만큼 달라 질 것이다. 정당도 마찬가지이다. 정당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노력이전에 국민을 위한 좋은 정책개발을 통해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법을 적용하는 사법부에도 정의실현을 위해 욕심을 버리고 섬기는 바보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 국가의 밑받침이 되는 교육과 그 위에 세워지는 기둥인 경제와 이것에 의해 받쳐지는 정치라는 대들보는 튼튼한 국가의 골격이 된다.

국가라는 집안을 들어가 살펴보면 사랑방인 사회가 존재한다. 사람이 만나는 응접실인 사회를 바로 보며 더불어 살기 위해 서로 섬기는 사람이 바로 사회바보인 것이다. 이 사회에 수많은 조직과 단체가 있다. 특히 NGO에 이러한 사회바보들이 많아야 한다. 원래 NGO야말로 공익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의 집합소인 것이다. 이들 가운데 NGO 본연의 자세로 약한 자를 섬기는 단체도 있지만 NGO가 정계진출을 위한 발판으로 사용되고 정부 돈을 따내기 위한 관변단체로 전락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단체들이 점점 많아지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특히 NGO에 사회바보가 많아져야 한다. 사랑방인 응접실에서 시민을 제대로 둉는 대화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이다.

안방인 가정을 보자. 가정바보는 가정을 바로 보며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가족구성원끼리 서로 섬기는 사람이다. 옛날에는 가족의 유대가 강하고 부부나 자식 간에도 인내로써 인간관계를 잘 유지했다. 요즘은 입시전쟁 속에서 인성을 외면한 공부와 과외위주의 이기적 인간교육이 대세를 이루어 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바보의 인간성을 키우는 부모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공부만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세상의 풍조 속에서 악하고 힘센 사람을 키우는 부모가 늘어가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가정에 착하고 힘 있는 사람인 가정바보가 많아져야 한다. 안방에서 서로를 돌아보며 부모와 자녀의 사랑이 피어나고 열매 맺어야 하기 때문이다.

창문인 언론을 살펴보자. 언론바보는 대중매체를 통해 공정한 보도와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여 건강한 여론을 조성하고 균형적 감각으로 독자와 시청자를 섬기는 사람이다. 수많은 매체들 특히 인터넷에 넘쳐나는 언론 매체들 중에 언론바보가 주도하여 이끌어가는 매체가 중요하다. 언론은 국민과 위정자가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다. 그러나 주류언론이나 매체들 가운데 국민과 공익의 입장에서 균형적인 시각을 갖지 않고 정치편향적인 모습으로 주도권 다툼을 하고는 매체들이 있다. 오히려 중간적인 온건한 매체들은 이 땅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며 잘 들리지 않는다. 정확하고 신속한 보도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지켜주고 사회곳곳의 문제점을 제대로 짚어주는 매체보다 상업성과 선정성에 몰두하는 매체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바보가 많아져야 한다. 창문이 흐리면 바깥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지붕인 예술을 쳐다보자. 예술바보는 예술을 바로 보며 아름다움을 통해 섬기는 사람이다. 예술은 인간의 삶을 고양시키며 인간의 정신을 건강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터넷의 발달로 음악, 미술, 문학, 연극, 영화 등의 예술은 오늘날 우리의 삶속에 더욱더 가까워졌다. 대중음악, 대중문학, 대중무용 등 예술의 수요자가 더욱 넓어나서 우리의 삶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삶을 풍요하게 하는 대중예술도 있지만 대중예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상업성과 선정성을 추구하며 삶의 질을 좀먹고 정신건강을 해치는 사이비 예술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예술을 바로 보고 그 속에 미적 가치를 창조하며 대중을 섬기는 예술바보가 더욱 필요한 시대이다. 지붕이 아름다

울 뿐만 아니라 비바람에도 찢기거나 물이 새지 않아야 지붕아래 사람들이 정서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다.

국가라는 집에서 교육바보, 정치바보, 경제바보, 가정바보, 사회바보, 언론바보, 예술바보가 많아질 때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치유되는 국가로 나아갈 것이다.

위의 국가의 삶의 영역을 보는 바보의 세 가지 기준은 일반적인 바보의 관점이다. 바보의 네 가지 기준은 하나님의 지혜가 더해진다. 즉 성경적 관점의 바보는 욕심을 버리며 섬기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바로 보는 사람이다(롬 12:1, 고전 1:21,27;요 13:4,5; 룸12:2).

한국교회도 집으로 비유될 수 있다. 한국교회가 튼튼하려면 교회의 각 삶의 영역에 바보가 포진되어야 한다. 국가의 삶의 영역에 연결하여 교회교육, 당회, 교회재정, 교회내의 가정, 교회내의 부서나 위원회, 교회의 신문과 방송, 교회내의 음악과 미술 분야에 현실을 직시하며 자신의 유익을 구치 않고 섬기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바보들이 계속 늘어난다면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봄된 지체로서 머리이신 예수님의 생명력을 받아 자라가는 독특한 유기체이다. 예수님은 보편적교회의 머리이시며, 개별교회의 머리이시다. 예수님은 욕심이 없으시며, 섬기시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며, 이 시대를 바로 보는 왕 바보이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한다(엡 4: 13). 따라서 교회가 각 삶의 영역에 수준 높은 바보들로 채워질 때 예수님의 몸을 세우며 주의 영광을 드러낸다.

전인건강학회는 각 분야마다 욕심을 버리고 섬기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이 세상을 바로 보는 바보를 요구한다. 앞에서 국가의 교육바보, 경제바보, 정치바보, 가정바보, 사회바보, 예술바보는 실천적인 면을 강조했는데 이론적인 면을 강조하는 학문공동체에도 마찬가지의 논리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정치바보는 삶 속에서 국민을 섬기는 정치가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치 지식을 산출하는 정치학자를 포함한다. 정치바보모임은 직업공동체의 정치가뿐만 아니라 학문공동체의 정치학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런 시각에서 전인건강학회는 학문공동체로서 자신의 전공과 관련해 여러 분야의 바보와 바보모임이 존재한다. 행정학을 전공하는 필자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구하고 섬기며 행정현상을 바로 보면 행정바보가 된다. 행정바보가 여러 명이 되면 행정바보모임이 된다. 행정바보모임은 바로 학술동아리로서 연구모임의 의미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우리학회의 건강도시연구회는 건강도시를 바로 보는 건강도시바보모임이고 목회간호연구회는 목회간호바보모임, CAM연구회는 CAM 바보모임, 암의 전인치료연구회는 전인치료 바보모임이 된다.

건강한 국가와 교회를 위해 전인건강학회가 교육, 경제, 정치, 가정, 사회, 예술, 간호, 의료, 교회, 가정, 도시, 환경, 치유 등 각 분야에서 바보의 수준이 향상되고 바보모임이 늘어나길 소망한다.

기독의 불씨로 삶의 희망을 지펴주세요 ...

6월 5일은 암 환자·가족 위한 기독의 날

(2011년 6월 2일자 국민일보)

김영준(전인건강학회고문, 암퇴치운동본부고문)

조무성(암퇴치운동본부, 한국암환자와가족을위한기독모임공동대표)



“암 환자가 치료받을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특히 가난한 암 환자가 골고루 치료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펼치소서. 암을 통하여 암 환자와 가족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참된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소서. 암으로 인해서 가족의 유대가 더 강해지고 결속되도록 사랑을 충만케 하소서. 암을 통해 오히려 봉사하며 성기는 삶을 살게 하소서...”

6월 5일은 ‘암 환자와 가족을 위한 기독의 날’이다. 한 해 동안 암으로 7만명이 목숨을 잃고, 18만명의 새로운 암 환자가 발생한다. 현재 70만여명이 암으로 투병하고 이들의 가족까지 감안한다면 200만여명이 암으로 고통당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암 등록 통계, 2010).

“당신은 암입니다.” 암이란 단어 한마디에 사람들은 암담해지고 지금까지 갖고 있던 모든 희망의 끈을 놓아버리기도 한다. 그만큼 암은 수술을 통해 완치되더라도 재발할 가능성이 높아 항상 살얼음판을 걷듯이 생활해야 하고, 치료과정에서 환자와 그 가족들이 겪는 고통은 말할 수 없이 크다. 이런 암 환자와

가족을 돋는 모임이 있다.

‘한국 암 환자와 가족을 위한 기도모임’(한가모·공동대표 조무성 한은자)은 2000년 ‘암 환자와 가족을 위한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지난 11년 동안 기도의 불씨를 지펴 왔다. 한가모는 매월 암 예방과 치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특강과 기도모임을 열고 있다. 이 시간은 건강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4년째 기도모임에 참석해온 이춘자(67·강북제일교회) 권사는 “건강정보도 나누고 중보기도를 하는 기도모임이 투병에 큰 힘이 됐다”며 “5년 전 위암수술을 받은 후 마음을 졸이며 투병해 왔는데 며칠 전 병원에서 완치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영준(암퇴치운동본부 상임고문) 박사는 “모든 질병은 창조주가 입력해 놓은 영기서열이 헝클어지면서 생긴다”며 “유전자를 만드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것”을 권면했다. 또 김 박사는 “4차원의 마음(신앙)이 3차원의 육체를 관장하므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하면 4차원의 마음이 유전자를 바로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암으로 고통 받는 성도들이 교회 내에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모임이 활발하지 않다. 그 이유는 질병을 죄에 대한 시련으로 보는 시각, 고통보다는 축복을 강조하는 교회 분위기, 죽음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임상목회자들은 질병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하는 믿음의 통로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올바른 성경관에 입각해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쉼터가 필요하다. 큰 교회는 환우와 가족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정보와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환우쉼터’를 만들어서 구체적 프로그램을 펼칠 수 있다. 또 지역 교회가 연합해 암 환우들이 영성과 휴식과 정보 및 신앙 재활교육을 할 수 있는 쉼터를 마련할 수도 있다.

한가모 공동대표인 조무성(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가난한 암 환자들 가운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단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에 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면 교회 내 약한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가모는 암 환자와 가족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치료가 끝난 환자들에게 방황하지 않도록 전인치료적인 서비스를 받는 요양병원 설립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한가모는 5일 오후 4시30분 서울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8층 중회의실에서 기도의 날 행사를 갖는다(02-544-7991).



‘첫 음악선교사 마두원’의
기념을 반 낸 피아니스트 김애자

(2011년 6월 8일자 국민일보)

김 애 자

피아니스트

전인건강학회 이사



[미션라이프] 선교사 마두원(미국명 Dwight R. Malsbary)을 아는 이는 흔치 않다. 그는 한국에 온 최초의 음악선교사다. 1961년 김치선 목사와 함께 현재의 대신 교단을 창립하기도 했다.

1899년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난 그는 시카고의 셔우드음학대학을 졸업하고 1929년 미국 북장로교의 음악선교사로 한국에 파송됐다. 평양승실전문학교, 평양외국인학교에서 서양음악을 가르쳤으며 한국의 유명한 음악가들을 배출했다. 작곡가 김동진, 전 연세대 음악대학장 박태준, 오페라가수 채리숙, 피아니스트 한동일 백건우 등이 제자다.

1936년 일본이 신사참배를 강하게 요구하자 마두원은 평양승실전문학교를 그만두고 학생들과 기도모임을 만들었다. 이때 함께 했던 학생들이 방지일 박윤선 목사 등이다.

그는 1977년 강원도 흥천서 차 사고로 목숨을 잃기까지 음악뿐만 아니라 목회, 의료분야에도 영향을 미쳤다. 일제하에서 강제 추방됐던 그는 해방 후 목사의 신분으로 돌아왔다. 고려신학대학

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1961년 김치선 목사와 함께 대신 교단 전신인 예수장로교 성경장로회를 창립했다. 강원도 홍천군 일대에 교회 27개도 개척했고 제이드(Jade) 병원도 설립했다.

최근 ‘음악선교사 마두원’기념 음반이 나왔다. 피아니스트 김애자가 마두원의 찬송피아노편곡집을 재해석, 연주앨범을 낸 것이다. 한국과 미국 등지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는 김애자는 아버지인 영창악기 설립자 김재창씨와 함께 마두원에게 피아노를 배웠다. 이때 마두원이 직접 쓴 찬송피아노 편곡집을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김애자는 명문 비엔나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국·내외 대형무대에서 연주하고 있는 찬양사역자다. 미국 뉴욕주립대에서 석사, 텍사스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1995년 구소련 세인트 피터스버그 필하모니홀, 2000년 미국 가든 그로브의 수정교회, 2004년 뉴욕 카네기홀 등에서 연주했다. 피아니스트로 잘 나가던 그는 1993년 러시아 모스크바집회에서 소명을 받고 찬양사역자로 변신했다.

김애자는 “반세기가 지난 지금 그의 음악을 소리로 남기지 않으면 귀중한 유산이 잊혀질 것 같다 는 긴박감 때문에 음반을 냈다”고 말했다.

미국 교포인 그는 이번 앨범을 위해 지난 1년간 ‘피아노 동냥’을 했다. 본인 피아노가 없어 남의 피아노로 연습했다. 마침 서울 양재동의 한 교회가 피아노를 빌려줘 그곳에서 연습했다.

김씨는 “광화문에서 양재까지 매일 2시간씩 이동해야 했지만 오히려 그 시간에 기도하고 묵상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고 말했다. 그는 하루 대여섯 시간씩 연습에 매달렸다. 하지만 힘들었다기보다 숨겨진 금은보화를 캐는 기분이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마두원의 영성을 재현하기 위해 지인들을 직접 찾아 나섰다. 방지일 목사와 대학사역을 함께 했던 김상복 할렐루야교회 원로목사 등을 만났다. 마 선교사가 개척한 홍천 교회들도 방문했다.

앨범은 클래식음반으로 슈베르트, 멘델스존, 리스트의 낭만파 분위기가 물씬 난다. 김애자는 “멘델스존의 ‘무언가(無言歌·Songs Without Words)’의 스타일과 비교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음악보다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의 영, 말씀의 영, 정결의 영이 잘 전달되도록 심혈을 기울였다”며 “비록 피아노 선율밖에 없지만 듣다 보면 가사까지 따라 부를 수 있는 찬송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홈페이지 : www.aijakim.org/)

김상복 . 김진홍 목사, 교계 현안들 놓고 대담

(2011년 6월 18일자 크리스천투데이)

김상복(할렐루야교회원로목사, 전인건강학회고문)

김상복 목사 “목회자는 섬기는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김진홍 목사 “교회 영성·도덕성·공동체성 회복 급선무”



▲박종구 목사의 사회로 대담을 갖고 있는 김상복 목사와 김진홍 목사.

교계 내 고소·고발, 폭행, 금전문제 등 최근 한국 기독교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김상복 목사(할렐루야교회 원로)와 김진홍 목사(두레교회)가 자성과 객신의 목소리를 높였다. CTS기독교TV(회장 甘炅徹, 사장 구본홍) 프로그램 ‘한국교회 변화가 필요하다III’에 출연한 두 목사는 공통적으로 한국 교계의 금권선거 등 최근 일어난 사태에 대해 “한국교회 목회자로서 부끄럽고 충격적인 심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먼저 최근 일어난 교계 문제에 대해 김상복 목사는 우선 한국교회의 금권선거 등 최근 일어난 사태에 대해 “참으로 부끄럽고 충격적이며 슬펐다. 과거에 비슷한 이야기를 소문처럼 들었지만 믿

을 수 없었고 믿고 싶지 않았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이라고 밝혀지니 안 믿을 수도 없고 이 일들이 사실이라면 차라리 이번 기회에 다 알려지는 것이 잘 된 일”이라고 전제한 뒤에 그래도 미래의 한국교회를 짊어질 젊은 목사님들 가운데 좋은 분들이 많기에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다고 밝혔다.

김진홍 목사 역시 “한국교회가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좋은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너무 부정적인 얘기가 나와서 안타깝다. 그러나 종기는 아픔을 참고 터뜨려야 치료가 되듯이 한국교회의 문제도 터져서 치료되고 새 출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심경을 밝힌 후, “그동안 일반 대중이나 매스컴에 한국교회가 과잉 공격을 당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만큼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사회가 교회에 대해 다소 비판적인 것에 대해 조금은 긍정적인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단 그 공격의 재료는 한국교회가 준 것이니만큼 쇄신할 것은 해야한다”고 한국교회의 현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교회 공동체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해 김진홍 목사는 교회가 품어야 할 3가지 특성 즉, 영성, 도덕성, 공동체성이며, 한국교회는 복음적 전통이 있지만,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 것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 영성 훈련이 다소 소홀해진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고 교파와 개교회의 한계 넘어선 세 가지의 특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복 목사는 목회자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자 문제임을 강조한 후 자신은 평생 목회를 하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을 늘 가슴에 품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교회의 작금의 사태에 대해 목회자와 목회 둘 중에서 목회자가 목회보다 우선시되는, 하나님 앞에서의 잘못된 모습이 큰 원인 중 하나님을 지적하고 목회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지면 밖의 문제에 더 신경 쓰기 마련이라고 충고를 아끼지 않았다.

시대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목회자상에 대해 김상복 목사는 당회나 교인들이 목회자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지금의 풍토를 군사문화의 영향이라고 지적, 목사 즉 미니스터는 섬기는 사람

임을 잊지 말 것을 강조했다.

김진홍 목사 역시 요한복음 10장, 에스겔 34장을 평생 목회자로서 지침으로 삼고 있으며, 목회자가 된 이상 본질을 벗어나지 말아야할 것을 강조했다. 일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보다 예수님 말씀에 드는 좋은 목자 될 생각을 하며 양들을 위해 헌신하는 깨끗한 목자가 필요한 시대임을 역설했다. 또한 10년 전 지인으로부터 기도가 약한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충격적이었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고 기도와 말씀 육상으로 영성강화를 위해 노력한 체험을 얘기한 뒤 교회는 목회자 영성만큼 성장함을 강조했다.

영성과 삶 속의 실천 문제에 대해 김상복 목사는 자동차, 핸드폰 등 현대문화가 영성 발달에 많은 장애가 된다며 목회자나 평신도가 어떻게 영성관리를 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며 이것이 잘 관리되면 인격화되고 신앙의 생활화가 이루어진다고 역설했다.

김진홍 목사 역시 한국교회와 교인들에게 영성이 인위적인 거룩성이란 잘못된 아이덴티티가 형성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교인들이 사회 속에서 각자 처한 위치에서 삶과 신앙이 일치되면 한국사회는 달라질 것이라며 생활 신앙을 강조했다.

이번 좌담회에서는 미국의 크리스탈 처치 사태에 대해 언급하며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받는 교회 물량주의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논의했다. 김상복 목사와 김진홍 목사는 대담을 마치며 지금의 한국교회가 많은 문제와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지만 미래는 여전히 낙관적이며 우리가 희망을 품고 하나님의 때에 성경이 제시하는 교회의 방향에 따라 쇄신하면 이전보다 더 견고한 신앙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CTS스페셜-한국교회, 변화가 필요하다III”는 6월 22일 오후 2시 10분과 6월 24일 새벽 2시 30분, 6월 26일 오후 5시에 CTS(케이블TV, 스카이라이프(ch414), IPTV(KT ch555, SK브로드밴드 ch601, LG U+ ch111), 스마트폰 CTS어플리케이션 등)를 통해 볼 수 있다.

전인건강학회 소식

신입
이사
소개

김숙정 교수 (광주보건대학 간호과)
박희옥 교수 (계명대학교 간호대학)
이갑순 교수 (기독간호대학)
임경수 교수 (계명대학교 기독교학과) – 차기이사회에 인준

3
차
이
사
회
의
회
및
총
회
인
준

I. 3차 이사회 회의록

1. 차기공동회장 추천 (가나다순)
김성록 교수 (상계백병원 암센터소장)
김정남 교수 (계명대학교 간호대학)
이병수 교수 (고신대학교 국제문화선교학과)
최희균 교수 (협성대학교 도시공학부)
 2. 지역회장 추천 (가나다순)
경남지역 – 김은심 교수 (경상대학교 간호대학)
광주지역 – 소향숙 교수 (전남대학교 간호대학)
대구지역 – 김정남 교수 (계명대학교 간호대학)
부산지역 – 이영은 교수 (고신대학교 간호대학)
 3. 학술지 관련 논의 – 학술지 학진등록 및 연 1회 발간과 계속적인 등재 노력
 4. 관사사례인상논의 – 차기이사회에 반영
- ## II. 총회인준
1. 차기공동회장 인준 – 동의
 2. 지역회장 인준 – 동의

총
계
학
술
대
회

1. 발표자
 - I. 노영상교수, 정중호교수, 조무성교수, 최희균교수
 - II. 최갑도목사, 이영은교수, 소향숙교수, 김정남교수
 - III. 고수진의사, 문익수교수(불참), 한나간호사

2. 참석자

66명 참석

3. 봉사자

계명대학교 간호대학 학생
계명대학교 간호대학 조교
대구지역 목회간호사

공
지
사
항

1. 7월 소식지 칼럼 – 7월 15일까지 제출 (칼럼모집양식은 홈페이지 참고)
2. 회비, 이사회비 – 7월부터 소식지에 회비를 납부하신분의 명단 기재 (1~6월 포함)
3. 회비, 계좌 안내
 - 1) 회비 : 회장 – 30만원 . 부회장 – 20만원 . 이사 – 10만원
학회등록비(회비) – 2 만원
 - 2) 계좌 : 은행 – 국민은행
예금주 – 조무성 (전인건강학회)
계좌번호 – 673601-04-001837
4. 학술대회에 발표자, 참석자, 봉사자
총계학술대회를 무사히 잘 마치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홈페이지 : <http://www.hha.kr/>
E - MAIL : holisticheal@naver.com

전 인 건 강 학 회

H O L I S T I C
H E A L T H
A S S O C I A T I O N

우리 자신, 가정, 교회, 사회, 환경의
성경적 건강을 추구합니다

소식지 내용의 저작권은 전인건강학회가 소유합니다.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